

여수시, 시민·관광객 함께하는 가을 축제 풍성

내일부터 이틀간 市일원서
‘2025 여수섬슬랭 페스타’
‘홍국상가 응답하라 1995’
푸드토크쇼·추억의 거리 등

여수시가 가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를 마련했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11월1일 까지 홍국상가에서 복고 감성의 ‘응답하라 1995’

행사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025 여수섬슬랭페스타’가 열린다. ‘섬슬랭’은 섬과 미슐랭(Michelin)의 합성어로 ‘최고의 섬 음식 가이드’를 의미한다. 여수의 특별한 섬 음식과 정당한 식재료를 주제로 전시,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신규 미식 축제다. 행사장에서는 ▲섬 음식 전시와 시식 ▲푸드토크쇼 ▲전통주 페어링쇼 ▲커피 시연회 ▲섬 음식 만들기 체험 ▲섬섬푸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셰프 레이먼킴이 지역 청년 셰프들과 함께 섬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보이며 사전 모집

된 시민 시식단 50여명이 직접 참여한다. 또한 국가대표 로스터 주성현이 시연하는 ‘거문도 해풍속 커피’와 전통주 페어링 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여수지부와 한영대학교 등이 운영하는 체험존 등도 진행된다. 여수시는 다화용기 사용과 일회용품 최소화 등 제로웨이스트 실천으로 친환경 축제를 운영, ‘청정여수, 건강한 섬’의 이미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여수의 대표 상권 중 하나인 홍국상가 일원에서는 오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복고풍 문화축제 ‘홍국상가, 응답하라 1995’가 열린다.

‘그때 그 시절, 우리는 모두 하나였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홍국상가의 전성기였던 1995년을 배경으로 세대가 함께 추억을 나누는 자리다. 행사에서는 ▲90년대 인기 캐릭터 체험 ▲청소년 댄스대회·가요제 ▲추억의 거리 재연 ▲오락실 게임대회 ▲프리마켓 등이 운영된다. 또한 90년대 대표 가수 Ref 이성욱과 DJ DOC 이하늘의 축하공연이 마련돼 열기를 더할 예정이며 헬크호건·세일러문 등 캐릭터가 등장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한다. 홍국상가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

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국비와 시비를 합산한 최대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특화이벤트,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섬슬랭페스타는 여수 섬의 고유한 미식문화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라며 많은 방문을 당부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홍국상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여수의 대표 상권 중 하나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아시아 주요국 여행사 대표단, 순천 방문

중국·태국 등 6개국 35명

남부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아시아 주요국 여행사 대표단이 전남 남부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순천을 찾았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 여행사 대표와 지사장 등 35명이 순천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대표단은 이날 오후 순천만국가정원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낙안읍성, 송광사, 세계수석박물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순천의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팸투어는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에 맞춰 남부권을 잇는 아시아 시장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국제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낙안읍성의 전통문화, 송광사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며 한국 남부권 관광의 중심으로 손색이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과 낙안읍성, 송광사 등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전남의 정체성과 문화를 대표하는 자산”이라며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순천이 전남 관광의 중심이자 남해안권 관광 네트워크의 출발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목적지 관리 전문 기업 하이시스 인터내셔널(HiSEAS International)과 인바운드 전문기업 에이치에스레저산업(HS Leisure Industry)이 공동 주관했다. /순천=정기 기자



김성(오른쪽) 장흥군수와 김재승 군의장이 옛 역무원 복장을 하고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 객차 내에서 추억의 간식 카트를 운영하며 간식을 판매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 통일열차 ‘추억의 기차 프로그램’ 눈길

무궁화호 간식 카트 재현

수익금 68만원 전액 기부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에서 옛 기차 감성을 되살린 ‘추억의 기차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철원 평화안보 현장 견학을 위해 운행된 통일열차 안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열차 안에서는 과거 무궁화호 카트 서비스를 재현한 간식 판매 이벤트가 진행됐다. 김성 장흥군수와 김재승 군의장이 옛 역무원 복장을 하고 객차 사이를 오가며 탄산음료, 오징어, 땅콩 등 추억의 간식을 직접 판매해 승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객차 내 방송 시스템을 활용해 역무원 안내 방송을 패러디한 재미있는 멘트가 이어졌다. “잠시 후 등장하는 간식 카트는 여러분의 추억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통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방송이

흘러나오자, 객차마다 웃음과 박수가 터졌다. 한 참가자는 “철원으로 가는 길이 정말 즐거웠다. 진짜 옛날 기차를 타는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된 간식 수익금 68만원 전액은 지역사회에 기부될 예정으로, 통일열차의 의미를 나눔으로 이어가는 뜻깊은 행보가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통일열차가 평화 탐방을 넘어 세대가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여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이 함께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군, BM활성수로 축산악취 잡는다

2019년부터 공급… 농가 만족도 ↑

화순군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B M활성수(Bacteria Mineral Water)가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과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BM활성수는 유익한 미생물과 자연 암석에서 추출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액상 유기질 비료로, 축사 내 분사 및 분뇨 처리 과정에 활용하면 암모니아 등 주요 악취물질을 감소시켜 냄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400t 이상의 BM활성수를 축산·작물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14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공급량은 2023년 285t에서 2024년 405t으로 늘어나며 해마

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군이 공급하는 BM활성수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공인 제품으로, 정기검사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공식 갱신을 실시해 안정성을 확보하며 농업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BM활성수는 단순한 냄새 저감뿐 아니라 미생물의 힘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BM활성수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미생물배양실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용기 지참 시 직접 수령 가능하다. /화순=이병철 기자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20% 할인

내달 9일까지…1천462개 가맹점 사용

장성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5%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이용자는 기존 15% 할인율에 5%를 더해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충전 시 10% 할인, 사용 후 돌려받는 ‘캐시백’ 10% 할인으로 나눠 적용된다. 장성지역 1천462개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소비자는 20% 할인 혜택을 받고 지역 상가는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고흥군은 최근 동강면 마곡리에서 마늘 복합파종기 연시회를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마늘 주산지 명성 되찾는다

郡, 마늘 기계화 파종 연시회 개최

11억 투입 농기계 53대 구매·임대

고흥군이 지리적표시 99호 ‘고흥마늘’의 명성 되찾기에 나섰다. 29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동강면 마곡리 일원에서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마늘 기계화 파종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흥군과 팔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마늘기계화 협의체 구성원과 농업기술센터, 관내 마늘 재배농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시회에서는 두둑 형성, 비닐말칭, 파종, 농약 살포가 한 번에 가능한 마늘 복합파종기가 시연됐다. 해당 기계는 작업공정을 일체화해 인력 투입을 대폭 줄이고, 파종작업의 효율을 높여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연시회가 마늘 기계화 추진과 협업모델 확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마늘기계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팔영농협·팔양농협·마늘생산자단체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농기계 20종 53대를 구매·임대했다. 이들 협의체는 농기계 관리와 시연·현장 교육, 농작업 대행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기계화 기반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군은 기계화 파종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적기 파종과 균일한 생육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마늘 재배면적을 늘리고 지리적표시 99호 ‘고흥마늘’의 명성을 되찾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기계화 기반을 토대로 마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생산부터 유통·가공까지 연계되는 협업체계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작목으로 ‘고흥마늘’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기자

담양군 ‘벼 깨씨무늬병’ 지원 총력

재난지원금·정책자금 유예 등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관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전국적으로 ‘벼 깨씨무늬병’이 확산됐으며, 담양군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 잎과 쌀알에 암갈색 반점을 유발해 품질 저하와 수확량 감소를 초래하는 병해로, 농가 경영 안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피해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 농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은 아울러 농업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벼 재배 농가 가운데 영세·고령 농가에



는 자부담 보험료까지 지원해 재해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 있다. 정철원(사진) 담양군수는 “벼 깨씨무늬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지원을 추진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